조코비치, 5시간 혈투 끝 윔블던 '정상'

윔블던 테니스 남자 단식서 페더러 꺾고 통산 5승
페더러 매치 포인트 잡고도 패… 윔블던서 71년만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가 벌인 올해 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은 이 대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클래식 매치'가 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윔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올해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조코비치는 페더러를 3-2(7-6<7-5> 1-6 7-6<7-4> 4-6 13-12<7-3>)로 물리쳤다.

윔블던에서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한 조코비치는 그 가운데 세 번이나 결승에서 페더러를 꺾고 정상에 오르는 묘한 인연을 이어갔다.

이날 조코비치와 페더러의 결승전은 4시간 57분이나 소요됐다. 그나마도 올해 개정된 규정 덕에 5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윔블던은 지난해까지 마지막 세트의 경우 타이브레이크 없이 한 선수가 2게임 차 이상으로 앞서야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게임 스코어 12-12가 되면 타이브레이크를 치르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그 결과 이날 조코비치와 페더러의 경기는 5시간을 넘기지 않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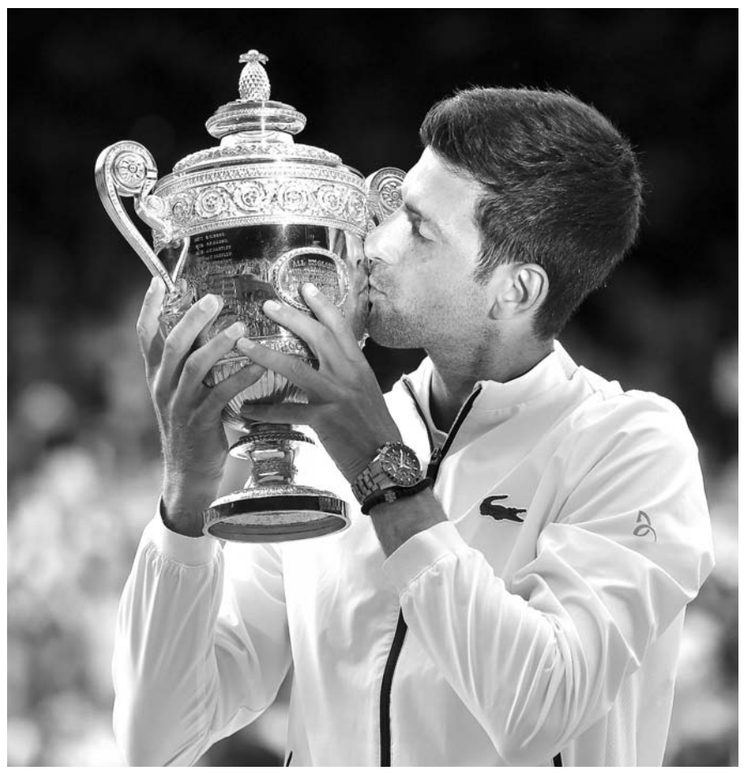
조코비치는 5세트 게임스코어 7-7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줬고, 이어진 페더러의 서브 게임에서도 40-15로 끌려갔다. 연달아 두 포인트를 따내야 듀스를 만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코비치는 페더러의 포핸드 실책과 자신의 위너를 묶어 위기에서 벗어났다.

페더러는 한 포인트만 가져왔더라면 만 37세 11개월로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최고령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우승 기록을 세울 수 있었지만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매치 포인트를 잡고도 이기지 못한 사례는 1948년 존 브롬위치(호주) 이후 올해 페더러가 무려 71년 만이다.

이날 영국 팬들은 어쩌면 마지막 우승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페더러를 더 많이 응원했다. 조코비치는 "내가 치른 가장 힘든 경기 중 하나"라며 "2012년 호주오픈에서도 나달과 6시간 가까운 결승전을 치렀지만 정신적으로 오늘 경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힘들었던 소감을 밝혔다.

페더러는 이날 실제 포인트에서는 218-204로 오히려 조코비치를 앞서고도 세 차례 타이브레이크를 모두 패하며 분루를 삼켰다. 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윔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윤다현 전국태권도대회서 은메달

여가부장관기 대회 여중부

윤다현(서귀중앙여중 3·사진)이 전국여성태권도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윤다현은 지난 7~14일 강원도 화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에서 여중부 헤비급 2위에 올랐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화천군체육회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제17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도 겸하고 있다.

윤다현은 이번 대회 8강에서 노유빈(동화중)을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한 뒤 우세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준결승에서는 권민서(석포여중)를 25-5의 압도적인 점수차로 따돌렸다.

그러나 결승에서 숙적 정수지(서원중)를 맞은 윤다현은 17-7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러야 했다. 윤다현은 초등부 시절부터 소년체전과 어린이 꿈나무태권도대회 등 전국대회에서 정수지와 수차례 맞붙어 승패를 주고받으며 기대주로 성장하고 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서귀포시, 대규모 체육관 건립돼야"

어제 지속가능한 스포츠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서귀포시 지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귀포시는 15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서귀포시체육회와 공동주관으로 '지속가능한 서귀포시 스포츠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충룡 도의회 부의장, 김민철 조선대 교수, 김성일 제주국제대 교수, 오상남 서귀포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정준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강경훈 서귀포시배드민턴협회장 등 8명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서귀포시체육회 임원 및 종목별단체 회원, 서귀포시스포츠클럽 등 체육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강경훈 서귀포시배드민턴협회장은 "서귀포시 지역에는 소규모 체육관은 많지만,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대규모 체육관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3000~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야 전국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규모의 대회가 대체로 제주시에 열리고 있는 것은 서귀포시 지역에 대규모 체육관이 없어 열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서귀포 지역에는 88올림픽 체육관, 공천포구장 등이 있지만 객석수가 적거나 우천 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성, 생활체육 증가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활용문제, 생활 SOC 정부정책에 따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축구 꿈나무 발굴' 제주·북경 전지훈련 교류

15~24일 유소년팀 초청
도내 6개 팀과 훈련경기

(사)제주국제스포츠진흥회(이사장 김형수)가 주최하고, 제주K&BFC가 주관하는 2019 제주·북경 하계 전지훈련 축구교류전이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외도축구장 등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베이징 궈안찐관 유소년FC와 뤼인천씽 유소년FC 선수단 35명이 참가해 하계 전지훈련 기간 자체훈련을 비롯해 제주유소년 축구팀과 합동훈련 차원에서 교류전을 진행한다.

2017년 창단한 궈안찐관FC는 중국 축구학원과 프로구단, 베이징체육대학 과기원과 함께 과학 모델을 개발해 우수 축구 인재 발굴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2016년 창단한 뤼인천씽FC는 베이징시축구관리센터와 베이징시축구협회에 등록한 청소년 축구 육성 클럽으로 유소년 축구 육성과 베이징시 출신 축구 인재 발굴 및 학원축구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교류전에 제주 유소년 축구 훈련팀은 제주Utd U-12, 하귀초, 외도초, 화북초, 서귀포초, 제주K&BFC를 포함해 6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한다. 참가팀들은 제주시 외도2축구장과 서귀포초등학교 축구장에서 각각 자체훈련과 합동훈련, 영상분석 등을 통해 양국의 하계 전지훈련 및 교류전의 성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민간 스포츠단체가 처음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제주도의 우수 꿈나무 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차별화된 기술 훈련으로 축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표성준기자

중국 궈안찐관FC와 뤼인천씽FC 선수단이 하계 전지훈련과 제주 유소년 축구팀과의 국제교류전을 위해 15일 제주를 찾았다. 사진=제주국제스포츠진흥회 제공

김세영 LPGA 클래식 우승
시즌 2승·투어 통산 9승 달성

김세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75만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655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22언더파 262타의 성적을 낸 김세영은 2위 렉시 톰프슨(미국)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26만2500달러(약 3억1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5월 메디힐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을 달성한 김세영은 투어 통산 9승을 수확했다.

이번 우승으로 김세영은 고진영(24), 박성현(26), 브룩 헨더슨(캐나다)에 이어 올해 네 번째 2승 고지에 오른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조은비·김수지 결승서 12위

"아쉽지만 괜찮아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조은비(24·인천시청)와 김수지(21·울산광역시청)의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밝았다. 비록 12명의 출전 선수 중 12위에 머물렀지만, 한국 선수 최초로 결승 무대를 밟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듯했다.

두 선수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5차 시기 합계 258.75점을 얻어 12위를 기록했다.

경기 후 여자 다이빙 대표팀 조은비는 "예선보다 결승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내고 싶었는데, 실수가 나왔다"며 "그러나 경기를 잘 마쳤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화)

K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1:50 한식의 마음(재)
12:00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늬우스
13:50 우리말 겨루기(재)
14:40 팔도밥상 스페셜
14:55 숨터(재)
15:00 가요무대(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5
17:30 동물의 왕국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보물섬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2:55 오늘밤 김제동
23:35 숨터
23:40 달 착륙 50주년 특선 다큐멘터리 8일 간의 위대한 여정

KBS2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퍼퓸(재)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5 살림하는 남자들(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재)
15: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17:00 다큐멘터리 3일(재)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퍼퓸(재)
22:00 퍼퓸
22:35 퍼퓸
23:10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

MBC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쿵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검법남녀 시즌2(재)
11:20 검법남녀 시즌2(재)
12:00 12 MBC 뉴스
12:20 2019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14:35 구해줘! 홈즈 스페셜
15: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6:20 모두 다 쿵따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8:25 웃음주식회사 속암수다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검법남녀 시즌2
21:30 검법남녀 시즌2
22:05 다큐에세이 그 사람
23:05 PD수첩

JIBS/SBS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장모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K트롯 서바이벌 골든 마이크 (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접속! 무비월드(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18:00 영재발굴단(재)
19:00 세 남자의 뻔뻔한 쿡방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부
22:40 불타는 청춘 2부
23:20 불타는 청춘 3부

EBS1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1
9:30 원더볼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00 EBS 정오뉴스
13:00 다큐 오늘
14:30 꼬마버스 타요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17:30 페파 피그
19:30 생방송 판다다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1:50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임미현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이한철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서연미의 가스펠 아워

KCTV
7:00 KCTV 뉴스
8:30 문화카페
9:00 KCTV 뉴스
9:30 2019 제주어창작동요제
11:40 KCTV VOD 씨네한수
12:10 UHD 특선
13:30 김민아의 무비 N 시리즈
16:10 UHD 특선
17:40 KCTV 시청자세상
19:00 KCTV 뉴스7
20:10 2019제주어창작동요제
21:3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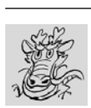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형제간 금전문제 또는 재산으로 인한 다툼, 불화가 생길수 있다. 48년 할 일이 배가 되어 즐거우나 무리함이 우려되니 여유있게 처리. 60년 집문서 변화 또는 현 직업에 변화가 온다. 72년 직장인은 호운이 오고 인정받는다. 자영업은 휴식 필요. 84년 자기의 사를 명쾌하고 정확히 피력하는 것도 용기라 한다.

37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니 마음껏 활동해도 좋다. 49년 바쁠수록 신중하게 활동하라. 서두르면 문제 발생. 61년 전문직 또는 창업과 관련된 업에 관심을 갖는다. 73년 취직과 관련된 것은 길. 이성문제는 차질이 생긴다. 85년 상사와의 유대관계를 잘 지속하라. 이성교제 소식이 찾아 온다.

38년 완고함보다는 부드러움이 존경 받는다. 50년 어머니나 사위의 갑작스런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이성관계 불륜 구설수 주의. 62년 자녀진로로 고민. 부모는 여러자료 준비로 분주하다. 74년 자신을 알고 분별력 있는 행동시 윗사람이 칭찬을 한다. 86년 하는 일에 호전되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39년 집안 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물건구입시 분실 조심할 것. 51년 인간관계에서 배신 배반 또는 문상할 일 발생하게 된다. 63년 중책이나 책임을 다 할일이 주어지고 늦게까지 바쁘다. 75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자제하며 사생활을 논하지 마라. 87년 취직 또는 이성교제가 진행된다.



40년 간섭을 상대는 참견이라 보니 시비조심. 운전조심. 52년 문서운 계약운이 길하고 변동운도 원만, 집안보다 외부 활동이 더 중요하다. 64년 재물 손재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 보증설정은 금지. 76년 이사 등의 문제로 분주. 자격증을 활용한 업무에 길. 88년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니 윗사람의 칭찬이 있다.

41년 기회는 만드는법. 찬스가 오면 포착하라. 하고자 하는 일 추진하라. 53년 일이 생기고 몸이 사방으로 분주하다. 65년 모친에게는 안부전화! 운전조심. 77년 상대방의 말에 자극을 받거나 논쟁은 나를 옹졸하게 만든다. 89년 목적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하여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함.

42년 너무 신중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단은 과감한게 좋다. 54년 내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갈 곳이 분주해진다. 66년 애인이나 이성이 다가오거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78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윗사람과 논쟁한다. 90년 자신감과 명예가 있어도 마음은 웬지 답답하다.

43년 맞지 않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손실만 초래하니 호기심 발동하지 마라. 55년 갈 곳이 많고 재물 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67년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해 드리면 좋아하신다.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이 생긴다. 91년 목표를 정해 충실하면 자신감과 더불어 이익 증가.

44년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 상의하라. 56년 벌과금 또는 생각지 않은 재물지출이 생기니 차량운전시 조심. 68년 외출이나 타지역으로 여행 또는 출장 갈 일이 생긴다. 80년 동료 또는 윗사람과 논쟁이 있으니 대응하지 않는게 좋다. 92년 일이 필요시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45년 답답하고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 57년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하라.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69년 물이 흐르듯 아랫사람의 말도 나에게는 중요하니 경청하는 자세도 좋다. 81년 서두르지 말고 한번 더 생각이 필요하며 신중함이 요구. 93년 피곤할 수 있으니 거절은 단호히 하라.

46년 귀인 도움으로 나의 능력이 배가 되고 바쁘다. 움직이면 복이 온다. 58년 직접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 자문을 구하라. 70년 한가지 뜻하는 일을 강력히 추진하라. 결과가 있다. 82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명예 또는 이익 발생. 94년 신뢰한 만큼 나도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47년 시비 구설이 오니 앞장서는 일은 신중하게. 59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이익이 증가된다. 71년 과정을 지나 결과물을 취득하는 때. 득자출생, 이성교제. 결혼운. 83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다. 95년 나의 따스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도 상대를 매료시킨다.